

25. 목재 가공 근로자에서 발생한 과민성폐장염

성별 남 **나이** 56세 **직종** 목재 가공 **업무관련성** 높음

1. 개요: 박○○은 목재 가공업체에 입사하여 3개월 간 작업하던 중 잔기침 등의 증상이 시작되어, 한 달 뒤 유발검사에 의해 과민성폐장염으로 진단받았다.

2.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: 박○○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한 자재(부직포에 본드를 발라 무늬목을 붙여 놓은 것)가 샌딩기 쪽으로 넘어오면 반자동으로 되어 있는 샌딩기에 자재를 넣어 사포질을 거쳐 얇은 무늬목(0.3 - 0.45 mm)으로 나오는 과정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였다. 또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기적으로 코팅 작업도 하였다.

3. 의학적 소견: 기존 질환이 없었으며 담배는 하루 반 갑씩 피웠다. 작업장에서 가지고 온 목재 분진을 이용한 유발시험에서 노출 1시간 후부터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고, 1초량은 12.3% 감소하였으나 노력성 폐활량은 26.1% 감소하는 제한성 환기장애를 보이는 등 과민성폐장염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.

4. 결론: 박○○은

- ① 특진 결과 과민성폐장염으로 확진되었고,
- ② 3개월간 샌딩 작업을 한 후 호흡기 증상들이 처음 발생하였으며,
- ③ 작업장에서 노출된 목재 분진에 의한 유발시험에서 제한성 환기장애를 보여,

샌딩 작업 중 노출된 목재 분진에 의해 발생한 과민성폐장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.